

윤석열·한덕수 임명 대법관 10명 “유죄”… 진보 2명 “반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골프 친 적 없다·사진 조작됐다,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파기환송 쟁점·배경

“개인 아닌 선거인 시각에서 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로 계속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쟁점은 =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 채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과 골프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 크게 2가지 쟁점을 판단해 이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먼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이 후보가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김 전 차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항소심에서는 기억이나 인식으로 보고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김 전 차장과의 관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은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한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의 공표이자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 아니”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쟁점은 =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을 뒤집어 1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직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의 판단은 선거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보다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골프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의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은 = 이 후보 사건 선고는 14명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행됐다. 이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결정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2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현정사상 가장 빨리 선고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사건을 적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파기환송 절차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확정판결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먼저 이 후보에 대한 사건 기록이 다시 서울고

대법원 대법관 현황

제17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기는 6년,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인한 임기 만료 예정

조희대	노태악	이홍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출생연도 1957년	1962년	1963년	1964년	1968년	1962년	1966년
출신대학 서울대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수원 13기	16기	22기	21기	25기	19기	21기
임기 만료 2027년 6월*	2026년 3월	2026년 9월	2027년 5월	2027년 9월	2028년 11월	2029년 7월
임명자 윤석열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윤석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 11명(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다수의견 10인
파기 환송

반대의견(이홍구·오경미 대법관): 이 후보의 골프 일정,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소수의견 2인

연합뉴스 자료:대법원

대법관 성향 판결 영향 미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대법관의 성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날 이 후보에 상고심 선고에서도 이홍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을 내고 나머지 10명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의견을 냈다.

결국, 대법관의 성향이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12명 중 10명이 중도·보수

진보 성향은 2명만 참여

에서 무죄인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이 후보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 한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인정신문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대선 일정 등의 이유로 이 후보가 불참하면 대선 전에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콰!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콰!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쌍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

지역 대표 금융 기관

서광주농협